+

북구보건소 외부 강사 계약서도 無…'답습 행정' 여실

수년간 사전 간담회로 갈음해 관련 증빙 서류 등 미흡 올해 18개 사업 29명 참여…區 "전수조사 등 일체 보완"

〈속보〉'건강북구! 달빛운동교실' 강사 들의 이중수급 비위와 예산 과다 편성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광주 북구보건소 (본보8월28일·9월2일 6면 보도)가 수년 간 외부 인력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.

이에 북구보건소는 위촉 계약서 양식

을 새로 만드는 등 재발 방지책 수립과 함께 미처 적발하지 못한 이중수급 비 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 에 나서기로 했다.

2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 '외부 강사'를 위촉해 운영하는 사업은 ▲건강북구! 달빛운동교실 ▲지피(血)

지기 백전백승 고당교실 ▲임산부 운동 교실 ▲내기억지킴이 ▲기억을 지키는 청춘개론 ▲기억장단 ▲엄지로 기억을 지켜요 ▲기억 더하기 마음 나누기 ▲ 기억 다락방 등 18개다.

사업별로 적게는 1명, 많게는 5명까지 외부 강사를 고용해 총 29명이 북구보 건소로부터 각자 활동 시간에 따른 수 당을 받아왔으나, 이들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
고용 관계 증명과 수당 지급의 근거 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없이 사업

이 추진된 건 올해뿐만이 아니다.

외부 강사를 운영하는 각 사업의 시 작 연도는 모두 다르나, 가장 오랫동안 시행돼 온 건강북구! 달빛운동교실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.

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"강 사 위촉 시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왔는데, 이것으로 고 용 과정을 갈음해 온 것 같다"며 "이전 부터 해 온 사업이라 간과했던 것 같다" 고해명했다.

북구는 '답습 행정'에서 비롯된 계약 서 미작성 외에도 '예산 과다 편성', '이 중수급' 등의 문제가 최근 연이어 드러 남에 따라 '일체 보완'을 약속했다.

우선 외부 강사 위촉 시 계약서를 반 드시 작성하고, 서로 한 부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양식을 새로 만들어 관련 부 서에 배부했다. 올해 이미 종료된 사업 의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계속 활동 중인 강사들을 대상으론 순차적으로 계약서 를작성할계획이다.

또 강사 예산 편성 시 실제 지출 규

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'효율 적인 재정 운영'이 가능하도록 할 방 침이다.

특히 건강북구! 달빛운동교실의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사업 추진이 겹치는 시 기가 2017년부터인 만큼, 전수조사를 통 해 또 다른 이중수급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.

북구 관계자는 "사업 추진에 있어 미 진했던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"며 "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/안재영기자



추석 앞두고 한창인 '벌초'

추석 명절을 보름 앞둔 2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(구묘역)에서 묘지 관계자들이 잡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. /김애리기자

'과부하' 조선대병원 응급실, 타 과 의료진이 지원

앞서 조선대병원 전공의 107명은 정

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, 지난 2월

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남은 의료

진은 2-3교대씩으로 '비상진료체계'를

버텨왔다. 조선대병원은 비상진료체계

를 위해 기존 20개 병동에서 6개 병동을

줄인 상황이지만 2개 병동 추가 폐쇄를

조선대병원 관계자는 "응급실 진

료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진료

"내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필

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

검토하고 있다.

매주 한차례 운영…병동 추가 폐쇄 등 검토도

조선대병원이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실 의료진의 과부화가 지속됨에 따라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.

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오는 4일부 터 주 1회 타 진료과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.

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8명이 당직 근무 중인데, 전공의 공백이 장 기화되면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고

타 과 의료진의 지원을 받는 매주 수 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"며 요일(주 1회)에는 응급실 의료진이 돌 아가며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.

CMYK

력하고 있다"고 말했다. /기수희기자

광주경찰, 보이스피싱 '특별경보'

광주경찰청은 관내에서 최근 전화금융사 기(보이스피싱)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 을위해2일자체'특별경보'를발령했다.

최근 광주에서는 카드사·금감원 직 원,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의 현금 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.

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 직의 연락에 속아 1억5천300만원을 송 /안재영기자

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…파업 유보

기본급 3% 인상 등…노조, 오는 5-6일 조합원 투표

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했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, 총파업을 유보했다.

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 (이하 금호타이어 노조)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노사는 16차 교 섭을 벌여 기본급 3% 인상·격려금 500 만원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임금·단체협 약에 잠정 합의했다.

합의안에는 중단됐던 명절·근로자

의날·생일 선물 등의 지급을 2025년 1월 부터 재개하고, 광주공장 주차장 증설・ 건강검진 연령 확대 · 다자녀 출산 시 경 조금 지원 등도 담겼다.

노조는 오는 5-6일 잠정 합의안에 대 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통해 안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"사측과

의 교섭으로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"며 "해당 안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찬성하면 총파 업을 전면 철회할 예정이다"고 밝혔다.

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 임 단협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 지 16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지난 7월29 일제12차본교섭결과에 결렬을 선언지 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.

이후 지난달 8-9일 광주·곡성·평택 공장 조합원 3천543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, 3천104명 (96.43 %)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3일 총파업을 /주성학기자

'금고 털이·카드 도용' 피의자들 잇따라 구속

누범 기간 중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

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고를 훔친 30 대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 용한 40대가 구속됐다.

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절 도) 혐의를 받는 A (30대)씨를 구속 수 사중이다.

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의류매장에 침입, 10여 만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.

이 잠겨있지 않았으나, 보안 설비는 작 에 덜미가 잡혔다. 동중이었다.

+

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 을 저질러 복역하다 나온 뒤 누범 기간 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

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께 목포시 한 무인점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B(40대)씨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절도) 혐의로 최근 구속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.

B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훔친 신용카드로 북구 한 찜질방에서 4만2천원 상당을 결제했다 당시 A씨가 들어간 의류매장은 문 가 사용 알림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

경찰은 누범 기간이었던 B씨가 생활 인계했다. 결국 A씨는 보안업체 직원들에 의 비마련을 위해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해 범행 20분여 만에 붙잡혀 경찰에 인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, 여 죄를 조사하고 있다. /안재영기자

불법체류자 오토바이 사고에 '덜미'

오토바이 사고를 낸 20대 베트남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 주했으나, 경찰에 붙잡혔다.

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(도주치상) 혐의 로베트남국적A(20대)씨를입건했다.

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북구 용 봉동 한 상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몰 다 4살짜리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 의를 받는다.

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다리에 경상 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사고 신고 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, 조사 후 광주출입국・외국인사무소에

경찰 조사에서 A씨는 "불법 체류 사 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했다"고 진 /안재영기자



